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과제	PDAT 적용을 통한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 지원 연구 - 세종세무서 청사건립사업을 대상으로 -	김은희
	경상북도(영덕, 봉화, 울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신치후
수탁과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여혜진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제고 방안 연구	성은영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이상민
	서울로7017 보행특구 보행영향분석 용역	오성훈
	군산시 영화시장 자생형 도시재생 스타트업 통합지원 용역	윤주선

수시과제

① PDAT 적용을 통한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 지원 연구 - 세종세무서 청사건립사업을 대상으로 -

공공건축 사업기획 부실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의 낭비나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축의 품질 및 성능 제고를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공급 기조에 따라 사업기획 과정에서부터 수요자(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공공건축 조성과정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와 그 사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영국 DQI도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응용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도 2012년 PDAT(Public Design Adjustment Tool)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건축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은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행복도시 공공건축환경 조성과 국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7년 세종세무서 청사건립에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PDAT)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인 디자인 목표 수립과 향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자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의 세종세무서 청사 디자인 목표설정 및 평가 등 직접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향후 관리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세종세무서 디자인지표 마련, 디자인 워크숍 개최, 워크숍 결과분석을 통한 디자인 관리 방향 제시로 이루어진다.

김은희

① 경상북도(영덕, 봉화, 울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동법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등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옥자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옥자산 DB를 구축하고, 한옥의 보존 상태 및 멸실 원인을 파악하여 한옥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도 한옥 전수조사 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결과 경상북도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옥의 멸실 우려 및 지자체의 한옥정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을 대상으로 한옥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에 산재한 목조 건축물 약 2만 5,700채를 대상으로 항공 사진, 로드뷰 판독을 통해 한옥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추출하고, 추출한 잠정한옥 약 1만 3,800채에 대해 현장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한옥자산 DB를 구축·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옥자산의 분포 특성 및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 경상북도 한옥 진흥정책의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치후

②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지역의 디자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경관 형성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2009~), 민간전문가 지원사업(2015~),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2016~)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모든 사업은 종료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사업총괄계획가, 지역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행정 및 주민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고령군이며 연속 선정된 지자체는 밀양시로 총 2곳이다. 2017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사천시·청주시·완주군이며, 연속 선정된 지자체는 부여군·고령군으로 총 5곳이다.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관협정이 체결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연속 선정된 지자체는 웅진군, 익산시로 총 2곳이다.

특히 9년간 수행해 온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은 사업의 응모실적, 지원규모 및 현황, 총괄계획가 및 참여전문가 활동 관련 실적을 종합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디자인 관리 행정체계 개편, 발주 방식 변화 등 지자체의 지역경관 형성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행정 변화 측면과 통합 마스터플랜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중심 장소만들기와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운영 등 장소만들기 전략 측면에서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실적과 성과의 기록은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각종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이 갖는 의미와 효과, 지역의 중심공간 또는 쇠퇴한 구도심 등 다양한 여건에 놓인 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장소중심 관점, 이용자 관점에서 연계·통합하는 공간계획의 필요성과 가치를 되짚어 관련 제도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혜진

3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제고 방안 연구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도시화와 이에 따른 대량의 주택공급에 치중되어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서 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주택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하자보증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화된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사후 유지관리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면에서 열세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욱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대표되는 660m²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택공급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임대 목적으로 주로 건설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필지에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밀도로 최소한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설되어 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주택의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소규모 주택 품질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여 아파트에 상응하는 소규모 주택의 성능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소규모 주택의 성능 평가 제도와 소규모 주택의 하자보증제도 도입 방안으로서 신규 법률 및 기존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소규모 주택의 건축 시장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와 하자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은영

4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최근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도시 내 공공공간의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기존 주거지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에 비해 여전히 공공시설과 공공공간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도시재생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간을 포함한 생활인프라 확보와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다양한 공공공간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도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과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개의 지역의 사업과 그간 국내에서 마을재생, 주거지 재생 등으로 추진된 사업 중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교류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공공공간의 이용 활성화 방향 설정 및 활용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에서는 공공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사업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공공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추진될 도시재생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5 서울로7017 보행특구 보행영향분석 영역

이 과제는 서울로7017 보행특구 주변 보행환경 및 도시 활성화 차원의 개선효과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 내고, 사업의 정책적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제 수행 기간은 2017년 5월 19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12개월로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행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계절이 조사기간에 모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사전 보행네트워크를 분석을 통해 주요 17개 가로를 선정하였고, 현재 각 가로 섹션을 중심으로 보행량, 상권, 인식도 데이터들을 GIS 데이터들과 결합시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유사 과제들의 분석 방법들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서, 영역이 아닌 가로 단위를 중심으로 서울로7017 고가, 보행환경과 사전·사후 시기별 실측 보행량, 주변 상권, 이용자 인식데이터를 결합시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7개 가로별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보행환경 개선안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제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교통여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보행행태 촬영조사 및 분석', '보행특구 상권분석', '보행특구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분석', '보행특구 활성화 방안제시'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울로7017 보행특구 보행영향분석 과제는 최초의 보행자전용고가도로인 서울로7017과 관련 보행 사업에 대한 정책적 효율성과 지역파급성, 그리고 사업 효과와 서울시의 보행정책에 대한 시민신뢰도 강화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보행 관련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오성훈

6 군산시 영화시장 자생형 도시재생 스타트업 통합지원 영역

도시재생사업은 산발적 사업 추진,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족, 건물주·투자자·예비창업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저조 등이 공통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기획·설계·투자·시공·운영 각 단계를 서로 다른 팀이 담당하면서 공간계획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저하 문제와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지 않아 국비지원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건물주, 투자자, 예비창업자와 충분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사업 콘텐츠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최초 의도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획·설계·투자·시공·운영 주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전체 과정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는 분야별 현업 전문가가 전체 과정 기획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단기 집중형 실행 과정이자 합의의 장인 액티브 캠프를 실행하여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했다. 민간의 기획력과 운영능력을 최대한 접목한 민간주도-공공지원 방식을 채용했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보권 단위의 지역관리회사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관리회사를 통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상승한 지역의 가치가 지역 내로 재투자되고, 재투자된 가치 상승분으로 지역 브랜딩과 공간개선, 콘텐츠 고도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과 맞지 않는 콘텐츠의 단기적 성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현장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12월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07년 개소하였다. 개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념행사 및 세미나는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주제로 그간 추진된 건축정책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 현황과 함께, 연구소의 관련 연구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건축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김대익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로 1부 개막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 대독)과 이춘희 시장(세종특별자치시), 은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대소장, 조충기 회장(대한건축사협회), 김동주 원장(국토연구원)의 축사가 있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과 10년의 발전사를 소개하는 김상호 기획조정실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AURI 10년의 발자취’ 발표와 기념 떡 커팅식 또한 진행되었다.

2부는 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제해성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 기조연설 ‘건축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를 통해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부터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분야의 건축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았다. 이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정책정보, 녹색건축, 보행, 한옥,





공공건축, 도시재생, 건축서비스산업, CPTED 8개 사업 담당자가 '건축도시 정보체계 구축 성과와 기대효과', '지구와 집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녹색건축', '안전하고 행복한 보행도시 만들기', '한옥, 보편적 건축유형이 되다', '좋은 공공건축, 풍요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다',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을 향하여', '건축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미래', '범죄 예방환경연구센터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주제로 연구소의 사업 분야별 건축정책의 성과와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3부는 건축·도시 분야 산·학·연·관의 전문가들과 건축정책의 과제와 미래를 모색하는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김대익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승기 건축정책관(국토교통부), 이상준 부원장(국토

연구원), 박인석 교수(명지대학교), 조준배 재생사업 기획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전진삼 발행인(와이드AR)이 참석하여 오늘 발제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연구소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전문가들과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건축정책의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건축정책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는 기회가 되었다.

김영현

2017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017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Walkable & Safe City)’를 열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과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 워크 메트로 밴쿠버의 샌디 제임스(Sandy James) 대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도시연구본부장이 발제를 진행하였다. 샌디 제임스 대표는 ‘캐나다의 보행 가능성 달성과 밴쿠버의 접근방식’ 발표를 통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캐나다가 기울여 온 노력의 과정과 추진 정책 및 세부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오성훈 도시연구본부장은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보행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차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보행자를 위한 도시 가로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미국 도시교통전문가협회(NACTO)의 파브리시오 프라티(Fabrizio Prati) 부장은 '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 설계'를 제목으로 NACTO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가로 설계 가이드의 내용과 효율성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지가로 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개선하려는 고령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권의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제도 개선방안' 세션에는 프랑스 도로위험반대연대의 샤탈 페리송(Chantal Perrichon) 회장과 아주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발제하였다. 프랑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 범정부적 협력 과정 등을 '교통약자(보행자) 보호 의무' 발표를 통해 공유하였다. 이어 김지엽 교수는 '우리나라 보행 관련법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효력이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행법 위상 확보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등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울대학교 하동익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민·관·학계의 보행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선 발제와 향후 국내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박예슬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한옥의 현대화'를 주제로 준공·계획·사진 총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준공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30개 총 51개 작품이 수상하였다.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천연동 한옥'(구 가도시건축 조정구)이 선정되었다. 천연동 한옥은 기존 한옥의 가치와 시간의 흔적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한옥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획 부문 대상에는 '해화당,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청주대학교 이명희 외 3명)가 선정되었다. 한옥밀집지역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입면 구성이 우수하고, 현대 건축구조와 한식 목구조의 결합을 통해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진 부문에서는 절제된 표현이 품격 있으며, 부드러움과 적절한 빛의 대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한옥의 토담'(고수경)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한옥공모전에는 3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과 계획안이 제시되어, 한옥이 가지는 창조적 공간으로서 가치와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진태승



2017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27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2017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에 대한 첫 번째 발표가 이어졌다. 사업을 진행한 사현정 주무관(수원시청 시설공사과)은 발표를 통해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 주요 고려사항과 성공 요인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건축의 원칙과 요건'을 주제로 오성훈 도시연구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교육이 이어졌다. 오성훈 본부장은 '공공성'을 둘러싼 다양한 정의와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공공건축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공공건축의 역할과 공공건축을 위한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변나향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개요부터 주요점, 사전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문제점 등 현황을 짚어보았으며 사업추진 전담 조직 운영 사례와 사전검토 준공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현행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한계와 합리화 방향 등 향후 발전방안 또한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는 정기교육에 앞서 교육 대상자들과 우수 공공건축 사례를 직접 보고 세미나를 듣는 '우수 공공건축 답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영주시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말선초박물관, 선비도서관 등 영주시 일대에 조성된 우수 공공건축을 답사하였다. 또한 도현학 단장(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의 '영주시 도농복합도시의 공공건축 정책' 세미나를 통해 영주시 공공건축 정책을 공유하고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임유경

news

